

# 2021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모집 공모 최종 심의 결과 안내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021년도 입주 예술가 및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 ☐ 최종 선정자 명단 [분야별]

### 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 부문(11개월/2021년 3월 ~ 2022년 1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이동전화
1	12202011040010	김OO	010-****-7146
2	12202011090042	한OO	010-****-9630
3	12202011100070	배OO	010-****-7150
4	12202011100083	최OO	010-****-9891
5	12202011110100	김OO	010-****-4560
6	12202011120131	김OO	010-****-3417
7	12202011120158	이OO	010-****-5825
8	12202011130197	허OO	010-****-5501
9	12202011130199	박OO	010-****-3272
10	12202011130233	양OO	010-****-6105
11	12202011130258	정OO	010-****-8803
12	12202011130315	박OO	010-****-0268
13	12202011130363	갈OO	010-****-4005
14	12202011130394	윤OO	010-****-5405
15	12202011130406	이OO	010-****-9070
16	12202011130407	김OO	010-****-3138

○ 기획자 - 대상자 없음

나. 공연예술 부문(11개월/2021년 3월 ~ 2022년 1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이동전화
1	12202011130247	윤OO	010-****-9592
2	12202011130296	박OO	010-****-0933
3	12202011130325	임OO	010-****-1918
4	12202011130402	이OO	010-****-6711

## 2.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3개월/2021년 3월 ~ 2021년 5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이동전화
1	12202011120185	최OO	010-****-0514

### ☐ 예비 선정자 명단

#### 1.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 가. 시각예술 부문

순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12202011120126	편OO
차순2	12202011130319	박OO
차순3	12202011130427	구OO
차순4	12202011130222	박OO
차순5	12202011130190	정OO
차순6	12202011130248	신OO
차순7	12202011130381	변OO
차순8	12202011130211	김OO

##### 나. 공연예술 부문

차 순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12202011110087	박OO
차순2	12202011130226	박OO

## 2.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 대상자 없음

### ☐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합니다.
- 입실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5일(금) 중
- 오리엔테이션 : **2021년 1월 28일(목)**,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예정)
  - ※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일정 변경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지참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개인도장
  - (※ 그룹의 경우, 대표(신청자)는 모두 지참, 팀원은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신분확인 서류 사본 제출)

## 2021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모집 공모 심의평

### ○ [1차]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부문,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2021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공모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이 어려워진 현실 가운데 적극적으로 타 장르 예술가와의 교류와 네트워크,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창작환경으로써 인천아트플랫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들은 작가로서 이미 완숙한 커리어를 보여주는 작가에서부터 작업 발표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으나 앞으로의 잠재력이 풍부한 작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들 간 경력이나 작업의 완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작가들의 수준은 높은 편으로 작업 개념에 대한 진지함, 작가 정신의 치열함,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민이 돋보였습니다. 많은 지원자 가운데 1차 입주 예술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류 검토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선별하는 방식으로 작품성에 따라 순위를 먼저 합산한 후 상위 그룹, 중간그룹 대상자를 중심으로 활동계획과 활동 경력과 같은 제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선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논의 대상에 있어 인천과의 연관성과 협업 가능성,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천 연고자의 경우 가산점 제도를 통해 가점이 부여되었는데, 레지던시 기간에 자신의 경험이 작업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타 레지던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인천을 소재로 한 작업 제안들 가운데 심도 있고 흥미로운 작업들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과의 연관성에 있어 실체별 의미 없이 억지로 연결하는 작업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올해 지원자 중 미술계에 이름이 알려진 작가가 상당수 포함된 점은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에 의해 해외 레지던시 지원이 줄어든 부분도 위의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전지구적 상황이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현재와 생존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에, 지원자의 작업 계획과 방향도 현실의 영향을 받아 다소 소극적이고 사적인 차원의 접근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기획자 부문은 예술가에 비교해 지원율이 낮고, 공고에서 요구한 기본 증빙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못해 기획의 변별성을 가려내기 어려워 기획자는 선발하지 않고 예술가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아트플랫폼은 작업실 기반에서 다원적인 연구 기반으로의 점차적 전환을 꾀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랩이란 형식의 공모가 시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소 미진한 편이어서 앞으로 랩 형식의 레지던시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획, 연구자들의 프로젝트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고원석(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김성우(독립 큐레이터, 2020부산비엔날레 큐레이토리얼 어드바이저)

오세원(CR컬렉티브 디렉터)

조주현(일민미술관 학예실장)

현시원(독립 큐레이터, 시청각 공동대표)

### ○ [최종]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예술부문,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2021년 인천아트플랫폼의 시각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인터뷰 면접 심사에는 1차 선정된 레지던시 입주 신청자 32명과 오픈랩 신청자 4명 중 입주 포기자 4명을 제외한 32명을 비대면 인터뷰 심의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의 인터뷰와 서류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작업의 특성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작업이나 입주 계획을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매체적으로는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이 비교적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는데, 회화의 경우 추상의 경향이 이전보다 더욱 가시화된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유 방식을 통해 매체에 대해 실험하고 새로운 서사를 입히려는 시도들, 동시대 현실에 반응하려는 작가들의 책임감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1차와 마찬가지로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작업계획이 분명하고, 작업에 있어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발전 가능성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착실하게 자신의 매체, 혹은 조형실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며 작업하는 작가들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 중 수도권 소재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입주작가 심사에서 늘 특정 경향의 작가들이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술계의 비판을 인식하게 됩니다. 작업계획에 있어 인천이라는 낯선 환경을 새로운 실험 환경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작업계획을 제안한 신청자도 있지만, 기성의 과대표된 표피적 로컬이미지를 그대로 소재화하는 조금은 평이한 계획들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몇 작가들은 구체적인 지역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작업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미 결말을 확정 지은 상태로 제안 되는 것이어서 지역 리서치라는 것이 정보 차원의 경험에 한정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 전형을 생산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인천하면 떠오르는 개항장의 역사, 항구, 월미도, 디스코 광장 등의 전형적인 관광주의 소비코드에 작가들의 상상력이 머무르는데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몇 작가들의 SF적 상상력이나 초현실주의 혹은 국제적 보편주의를 담보하는 인천공항에 관한 제안,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리서치의 상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류가 막힌 현재의 모순을 넘어서 예술적 실험이 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적 상상을 복원시켜 주어 기대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의 취지와 달리 개인 프로젝트를 리서치하고 이를 전시한다는 다소 단편적인 계획의 지원이 상당수에 그쳤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협업, 일반인들과의 워크숍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오픈랩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기 오픈콜에서는 더욱 농축된 고민이 담긴 프로젝트 지원자들을 기다려 보며, 많은 예술가 중 모두 선정하지 못함에 아쉬움으로 남기며, 다음 기회에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강승완(큐레이터, 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백기영(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변순영(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양효실(미학자)  
정현(미술평론가, 인하대학교 교수)

## ○ [최종]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연예술부문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예술가 공모의 공연예술부문 인터뷰 심의 대상자 총 11명 중 심사를 통해 최종 4인(팀)의 예술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공모의 공연예술부문은 지원자 개인의 작업 완성도가 높고, 예술적인 지향점이 분명한 창작자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입주 기간 창작자로서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간 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작업이며, 동시에 작업 세계와 자기 철학이 명확한 작가를 우선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년간 예술적인 목표를 명확히 해가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예술적 지향점과 일치하는 창작자,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지역, 기관, 그리고 레지던시 아티스트들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창작자와 프로젝트 계획에 가점을 주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신청자 모두 인천아트플랫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운 작업을 제안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4명(팀)밖에 선정하지 못한 점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발전 시켜 나가며, 향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좋은 작업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재록(상명대학교 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박지선(그룹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신성아(계명대학교 컴퓨터 음악, 작곡 전공 교수)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